



돌아온 손흥민 천금의 동점골

손흥민이 2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 입단 이후 300번째 공식경기에 출전해 자신의 리그 7호 골이자 시즌 8호 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시즌 7호골 입단 300경기 자축 ... 토트넘, 리버풀과 2-2 무승부

돌아온 손흥민(토트넘)이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빼앗아내는 천금 같은 동점 골을 터뜨려 팀의 무패 행진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밀리던 후반 29분 동점 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7호 골이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의 한 골을 더하면 시즌 전체 8호 골이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단은 이날 2주 만에 경기에 나섰다.

손흥민이 1골 1도움을 기록한 5일 노리치시티와의 EPL 15라운드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다.

10일 렌(프랑스)과의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 최종 6차전 홈 경기가 취소됐고, 12일 브라이턴과의 EPL 16라운드, 17일 레스터시티와의

17라운드는 줄줄이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매체에선 손흥민도 코로나19에 걸린 선수 중 한 명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후 이번 리버풀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팀 훈련을 소화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출격을 예고했고, 팀에 골과 승점을 안겼다.

손흥민은 3일 브렌트퍼드와의 리그 14라운드 1골, 노리치와의 15라운드 1골 1도움에 이어 모처럼 경기를 치른 이날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최근 3경기에서 3골 1도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경기로 2015년 토트넘 입단 이후 300번째 공식전 경기를 치러 의미를 더했다. EPL에선 통산 211번째 경기였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리버풀과 2-2로 비겼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투톱을 앞세운 토트넘이 전반 13분 케인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탕기 은동벨레가 중원에서 찢러 넣어준 패스를

받은 케인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며 오른 발로 마무리했다.

케인은 10월 뉴캐슬과의 8라운드 이후 2개월 만이자, 리그 7경기 만에 이번 시즌 리그 2호 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35분 디오구 조타에게 동점 골을 내줬다. 후반 24분엔 로버트슨의 역전 골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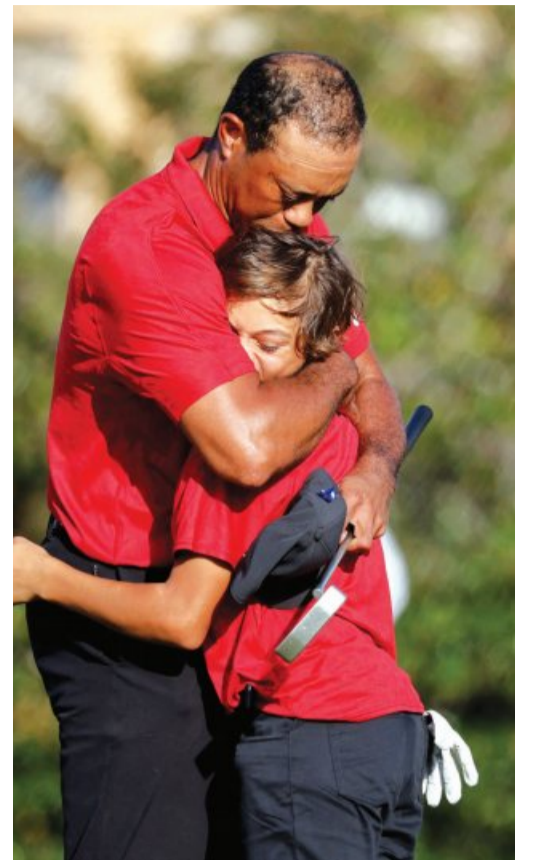
열세에 몰린 토트넘을 구한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후반 29분 해리 윙크스의 긴 스루패스를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페널티 지역 밖으로 미끄러지며 차 내려 했으나 그대로 흘러버렸고, 손흥민이 놓치지 않고 골 지역 왼쪽에서 침착하게 왼발 슈트를 넣었다.

토트넘은 후반 32분 로버트슨이 거친 태클로 비디오 판독(VAR) 끝에 퇴장되며 수적 우세를 점했으나 역전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승점을 가져온 골의 주인공이 된 손흥민은 폴타임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우리, 친한 사이예요” 토트넘 홉스퍼 대 리버풀의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워런 클롭 리버풀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그린에서 타이거 우즈(왼쪽)가 아들 찰리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거 부자 2위

PNC 챔피언십 15언더 합작

존 델리 부자에 2타 뒤져

타이거 우즈(46·미국)가 부활을 예고했다. 우즈는 20일 아들 찰리(12)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총상금 108만5000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15언더파를 합작했다.

이틀 동안 25언더파 119타를 적어낸 팀 우즈는 존 델리 부자(父子)에 2타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우즈와 찰리는 이날 버디 13개와 이글 1개를 잡아냈다. 특히 7번 홀부터 17번 홀까지 11개 홀 연속 버디를 뽑아냈다.

지난 2월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뒤 10개월 만에 필드에 나선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300야드가 넘는 장타를 날렸고, 날카로운 아이언샷과 쇼트게임에 예리한 퍼트는 여전했다.

“내가 해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다.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즈는 “몇 주 전만 해도 필드에 나설 수 있을지 몰랐지만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 함께 페어웨이를 걸을 수만 있기를 바랐다. 작년처럼 아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찰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샷을 했다. 퍼트도 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신태용의 인니

박항서 베트남

스즈키컵 4강 진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0 아세안 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 조별리그에서 조 1·2위에 오르며 나란히 4강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는 19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 4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 4-1로 역전승했다.

이로써 승점 10, 골 득실 +9를 기록해 베트남과 동률을 이룬 인도네시아는 득점에서 13골로 베트남(9골)을 제치고 B조 1위를 차지하며 4강에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을 포함해 스즈키컵에서 통산 5차례 준우승했으나 우승은 아직 없다. 직전 대회인 2018년엔 4강에 들지 못했다.

2019년 12월 부임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스즈키컵에 나섰는데, 디펜딩 챔피언 베트남을 따돌리고 조 1위로 준결승에 오르며 사상 첫 우승 꿈을 부풀렸다.

인도네시아는 22일과 25일 A조 2위로 4강에 합류한 개최국 싱가포르와 4강 1·2차전을 치른다. 베트남은 비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캄보디아와의 최종전에서 4-0으로 완승했다.

인도네시아에 밀려 조 1위는 놓쳤지만, 베트남은 조별리그를 무실점 무패(3승 1무)로 마무리하며 타이틀 방어 도전을 이어갔다.

베트남의 4강 상대는 통산 최다 우승팀(5회)이자 이번 대회 A조 1위 팀인 태국이다. 두 팀은 23일과 26일 맞붙는다. /연합뉴스

KIA 포수 한승택 “변화로 미래 연다”



한승택

기술·멘탈 부분 변화 ... 방망이 무게·길이 다 바꾸고 짧게 잡아

“목표는 꾸준한 활약 ... 많이 발전했다는 이미지 심어주고 싶어”

올해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KIA 타이거즈 포수 한승택이 ‘변화’로 미래를 연다.

포수는 팀 전력에서 중요한 포지션이다. 타석에서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배터리로 경기를 끌어가야 하는 책무도 막중하다.

중요한 자리지만 KIA에는 ‘주전 포수’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래서 한승택도 올해 시즌을 돌아보면 어렵다.

한승택은 “3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아서 많이 아쉽다. 전년 보다 더 준비했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개인 성적, 팀 성적도 그렇고 모든 게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움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꾸준함이다.

한승택은 “꾸준함이 가장 어렵다.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다.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주전이다.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심적으로 힘들다.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들쭉날쭉한 기용도 포수 경쟁의 아쉬움이 됐다.

한승택은 “(김)민식이 형이 잘해도 다음 날 나가 나가기도 하고 언제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항상 준비해야 하는 장점은 있지만 불안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움 속에도 성과는 있다. 부상 없이 시즌을 치렀고, 수비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한승택은 “큰 부상은 없었다. 어디 부러지고 찢어진 것 없이 시즌을 치러서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며 “하지만 타격 지표는 많이 아쉽다. 누가 봐도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래도 도루 저지 그런 기록적인 부분은 올라갔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70~80%는 했다고 느낀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젊은 투수들의 성장세에 함께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승택은 “외국인 선수도 아프고 초반에는 투수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졌다. 투수들이 결과가 좋을 때 자신감이 확 붙었다. 직구 구위 자체가 공을 받을 때 자신감이 보였다”며 “(이)의리는 중간에 아파서 아쉬웠지만 (윤)중현이나 의리, (장)현식, (정)해영 등 젊은 친구들

이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상대방과 싸울 때 자신감을 찾는 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투수들이 잘할 때 부듯하다. 투수는 내 도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깐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KIA는 2022시즌 김중국 감독을 앞세워 변화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한승택도 변화를 통해 ‘주전’ 타이틀에 도전할 생각이다.

한승택은 “올 시즌 안 됐던 것을 생각하고 타격적으로 연구하고 코치님들과 상의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앞서 기술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안 돼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뀌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합을 조금 더 나가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프로그 못하면 못 나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방망이도 바꾼다. 무게, 길이 다 바꾸고 짧게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째 이야기해서 부끄러운데 목표는 꾸준한 것이다. 내년 시즌에는 ‘많이 발전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